

여수시, 백도·향일암·흥국사 '생태관광지' 탈바꿈

자연유산에 '치유'·'힐링 체험'을 '여수형 생태투어' 체류형 상품화 거문도 등대 등 명승 지정 가능성 "종합계획 수립 방안 검토할 것"

여수시 주요 자연유산 및 명승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9일 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과 명승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려한 경관뿐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연유산과 명승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시에 따르면 국가는 그동안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국유유산청의 규제 완화로 활용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거제 해금강, 순천만, 문경새재, 진도 윤림산방 등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연유산이다.



여수시가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명승)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흥국사 전경. 여수시 제공

이에 여수시는 지난 1979년 첫 명승으로 지정된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등 주요 자연유산 및 명승을 생태관광지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이외 여수시는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을 비롯해 2022년 43년 만에 이름을 올린

먼저 '천연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백도는 39개의 무인군도로 이뤄져 상백도, 하백도로 구분한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기암괴석이 태고의 신비를 간직,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자연유산이다. 거문도에서 배로 약 40분이면 도착하지만, 현재 자연 보존 등의 이유로 입도는 불가하다.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흑비둘기·장박새·동박새 등 30여종의 희귀조류와 풍란·장수란·당채송화 등 아열대식물 353종, 해양식물 7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

대한민국 4대 관음기도 도량인 향일암은 돌산도 끝 금오산 자락에 자리하며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명칭에 걸맞게 새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거북 모양의 지형과 거북 등껍질 무늬의 암석, 자연 암석으로 이뤄진 해탈문 등의 석문(石門)이 울창한 동백나무 숲과 조화돼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돌산군읍지'와 '여산지' 등 고적으로 불교문화의 변천 과정을 볼 수 있어 역사·학술적 가치도 풍부하다.

'영취산'과 호국사찰 '흥국사'는 여수의 봄을 알리는 명소다. 50~60년생 진달래 수만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매년 4월 초가 되면 영취산 정상까지 진분홍빛 진달래가 만개한다. 영취산 중턱에 자리한 흥국사는 1195년(고려 명종 25년)에 보조국사 지눌이 창건한 사찰로, 임진왜란 당시 의승수군 400여명이 활약하며 호국불교의 성지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 2023년 보물로 지정된 '여수 흥국사 소조 사천왕상'을 비롯해 18점의 국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여수시는 이들 지역과 함께 추후 명승 지정 가능성이 있는 '수월산 거문도등대 일원', 천연기념물 '여수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등을 포함하는 '생태관광지 활용' 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자연유산과 명승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휴식과 힐링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태문화 자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시, 제10기 청춘여행길잡이 모집

만 19~45세 대상 24일까지 신청

순천시는 오는 24일까지 제10기 청춘여행길잡이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춘여행길잡이는 여행 상품 개발, 관광 기념품 제작, SNS 홍보 활동을 통해 순천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는 역할을 한다.

참여대상은 순천에 생활 공간이 있는 만 19세~45세 청년으로, 순천을 사랑하고 관광 콘텐츠 활성화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을 통해 총 20명 이내를 선발하여, 양성 교육 후 제10기 청춘여행길잡이로

위촉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 동안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활동 실적 증명서, 현장 활동에 따른 소정의 활동 보상비 등을 제공한다.

시는 청춘여행길잡이들을 통해 SNS 트렌드와 연계된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지역 특화 로컬 여행 콘텐츠 제작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접수(soda0412@korea.kr)로 진행되며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www.suncheo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시, 겨울철 매실·과수 병해충 방제 철저 당부

1월 중순까지 기계유유제 살포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월동기 병해충 방제 적기를 맞아 매실과 과수농가에 철저한 병해충 관리를 당부했다.

9일 광양시는 대표 농산물인 매실의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계유유제 살포 시기가 1월 중순까지라고 안내하며 관리를 안내했다.

'기계유유제'는 알이나 유충 표면에 피막을 형성해 호흡을 방해하는 살충제로, 거친 껍질 속에 숨어서 월동하는 해충인 각지벌레, 응애류, 진딧물류 등의 방제에 도움이 된다.

물 25말에 약제 1말(18ℓ)을 희석해 바람이 불지 않는 오전 이른 시간에 나무 전체적으로 살포하면 되며,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충이 알을 낳기 좋은 나무 밑동을 중심으로 성인 키 높이까지 살포해야 한다.

1월 하순부터는 흑성병, 각지벌레 등의 해충 방제를 위해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해야 한다. 특히 매실은 꽃눈이 터지고 나서 살포하면 약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꽃눈이 봉오리 상태로 변할 때 살포해야 한다.

석회유황합제는 물 5말에 약제 1말을 희석해 나무 지면부터 끝까지 살포하며 된다. 나무 부착성이 낮은 까닭에 전착제를 혼용해 사용해야 약효가 높고, 기계유유제와 병행 살포하는 경우 기계유유제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월동기 병해충 방제 적기를 맞아 매실과 과수농가에 철저한 병해충 관리를 당부했다. 사진은 기계유유제를 살포하는 모습. 광양시 제공

살포 후 1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살포해야 한다.

이상기후로 겨울철 기온이 높은 경우 새순과 꽃눈이 일찍 올라올 수 있어 석회유황합제를 너무 늦게 살포하면 수정 불량 또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꽃눈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주의 살포해야 한다.

또 겨울철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과와 배(돌배) 재배농가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화상병 발병은 동계 전정시기에 전정 작업자와 작업 도구에 의한 과원 간 병원균 확산이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에 과원 출입 및 농작업

후 작업자와 농기계 및 작업 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정할 때는 과원 내 방치하지 말고 과원 외부로 옮겨 파쇄하는 것이 좋다.

강인근광양시미래농업팀장은 "겨울철 병해충 방제는 올 한해 과수농사의 첫 단추와 마찬가지로, 월동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매실과 과수의 품질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월동기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 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농가의 주의 깊은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경찰, 청소년 비행 예방 캠페인

고흥경찰서는 동계방학 및 졸업식을 맞아 지난 8일 고흥동초등학교 주변에서 학교폭력, 사이버 도박 등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방학 및 졸업식으로 들뜬 분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 도박' 범죄에

대한 선제적 홍보활동을 펼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원 고흥경찰서장은 "고흥경찰은 졸업시즌에 이은 동계 방학기간을 맞아 학생, 학부모 및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고흥군,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고흥군은 오는 20일부터 2월12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농업인 16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들이 새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작목별 재배 기술과 신기술을 보급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교육과정이다.

교육은 군 단위 집합교육 5개 과정과 16개 읍면 순회 교육으로 진행된다.

군 단위 집합교육은 20일 유자 교육을 시작으로, 오이(21일), 마늘(22일) 과정은 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미생물(23일), 벼(24일) 과정은 농업기술센터

대교육장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읍면 순회교육은 오는 2월3일부터 12일까지 영농종합 및 특화작목 과정을 읍면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7개 읍면에서 읍면별 지역 특화 품목을 선정해 전문 강사를 초빙,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와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830-68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편의시설 입점자 모집

편의점·식당·카페 등 8개 공개입찰 지역 제한 해제

광양시가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편의시설 8개소 입점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대상시설은 1층 편의점, 2층 수산 전문식당 3개소, 3층 푸

드코트 3개소, 4층 카페 1개소로 총 8개소이며, 사용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다.

특히 이번 공개모집에서는 지난해까지 광양시 및 전남도로 설정됐던 지역 제한이 해제됐다.

전국 만 19세 이상의 개인 및 법인 등이 입점할 수 있으며 입점을 희망하는 자

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입찰(최고가 낙찰)에 참여하면 된다.

현재 센터 내 운영 중인 시설은 도매시장(1층)과 상차림 식당(2층) 2개 시설이다. 전체 편의시설이 입점할 경우 센터 전반의 활성화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참여 자격이 입점률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안영준 기자